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연구

The Recognition of Librarians about Roles of Regional Central Library

김 홍 렬(Hong-Ryul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I. 연구의 결과 분석 |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 조사목적 및 설문지 구성 |
| II. 이론적 배경 | 2. 조사결과 |
| 1.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적근거 |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기능과 업무내용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당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거나 협력사업의 추진내용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도서관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과 대외도서관협력을 지역대표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료의 납본 및 보존, 지역주민의 정보서비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향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협력업무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협력과 도서관상호대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보존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협력사업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도서관 협력, 사서 인식도, 도서관법

ABSTRACT

Regional central library hav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ch region. And it must to set priority the various ta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librarian's recognition about roles of regional central library for support to the local libraries. As a result, librarians was recognized the direction of library polic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libraries as the most urgent task. Also, librarians was considered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and interlibrary loan as the top task to perform in the future. The results is very useful in deciding contents of library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of the Library Policy.

Keywords: Regional Central Library, Public Library, Library Cooperation, Librarian's Recognition, Library Act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hykim505@jj.ac.kr)

• 접수일: 2009년 2월 19일 • 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한 새로운 도서관법이 개정된 지도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갔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은 기존의 도서관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으로,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즉 이것은 도서관서비스 행정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에 근거하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2005년 6월 발의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가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유사한 명칭으로는 도서관협력망 지역대표관이 있는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 정독도서관 등 전국 16개 시도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을 지정하여 협력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지칭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이 법적으로 규정된 이후,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 행정적인 준비를 완료한 곳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서관법에 의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이 확정된 지역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지역은 현재 지정이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단위도서관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이라는 용어와 역할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며,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을 놓고 행정적으로 운영주체가 다른 도서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운영주체가 다른 도서관간의 협력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임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도서관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적 혹은 행정적으로 명시적인 임무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¹⁾

또한 지역대표도서관 정책에 대한 시도 관계자들의 이해 정도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해부족은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관업무 담당자들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²⁾ 따라서 본

1) 배순자,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지역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08), p.46.

2) 김세훈, 심효정,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p.324.

연구에서는 해당 시도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선도하고, 효과적으로 단위도서관들을 지원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당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먼저 전라북도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의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향후 전라북도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동도서관의 지원 및 협력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개발하는데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인식도 조사는 전라북도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 94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원과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관중의 도서관이 공동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은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농촌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54.4%)보다 낮은 18%(2007년말)의 수준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빈약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다.³⁾ 따라서 이러한 낮은 재정자립도는 낙후된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 왔으며, 도서관분야에서도 독립도서관이 없는 몇몇 되지 않는 지역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낙후된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설문지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설문지의 구성형식은 선다형식법, 순위형식법, 가부질문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일시는 2008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공공도서관 현직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서 94명 가운데 전라북도 교육청산하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33명(35.1%), 지방자치단체소속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61명(64.9%)이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적근거

지역대표도서관의 추진 계획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부응이라는 대 전제에

3) 배순자, 김병재, “道 광역대표도서관 건립계획에 관한 一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6), pp.68-6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지역의 도서관정책수립과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수립과 추진 방향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도서관발전을 위한 서비스나 인프라의 구축에서 지역적인 격차를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원인으로 도서관간 협력도 동일한 관중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운영주체가 다른 공공도서관간의 협력은 극히 소극적이거나 협력을 회피하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이 급변하는 정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고품질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기초자치단체간 도서관서비스의 불균형 상황을 극복하고 여러 관중 간의 협력서비스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중심의 지역대표도서관 구상이 나타난 것이다.⁴⁾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지정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새로운 「도서관법」이 개정된 2006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도서관법의 입법취지는 인터넷 정보유통과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의 정보기본권 보장, 국가의 도서관정보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 강화, 지방분권 패러다임을 수용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책기능 강제, 지식정보격차해소, 취약 및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강화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⁵⁾ 그 후 2007년 4월 「도서관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2007년 6월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위한 표준조례가 배포되었다. 「도서관법」에는 제4장 공공도서관 영역에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근거가 되는 제22조,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제23조, 중앙집중식 도서관정책의 지역분권과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항인 제24조가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도서관법」제22조 1항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도서관법시행령」제15조에 “도서관법 제22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지역대표도서관의 개념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설립개념과는 달리 발전된 사회적 장치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개념과 지방화시대의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개념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이중의 통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⁶⁾ 이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

4) *Ibid.*, p.321.

5) 윤희윤,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p.32.

든 주민을 위한 도서관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지역 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박철완은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며 동시에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⁷⁾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 대학, 전문도서관 등 지역 내 모든 관중을 포괄하는 도서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관중 혹은 관중 간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⁸⁾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기능보다는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의 도서관 협력활동을 주도하고, 지역보존서고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서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기본 임무로 가지고 있다.⁹⁾

「도서관법」 제23조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여섯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시도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을 위한 업무, 둘째,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셋째,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넷째,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의 보존업무, 다섯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협력사업 등 지원업무, 여섯째, 그 밖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 도서관업무 담당자들의 도서관법에 대한 이해부족은 차치하고서라도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업무내용 및 지정 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서관정책 담당자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¹⁰⁾도 있다. 여기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업무 내용과 업무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이해부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금까지 도서관관련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수행되어져 왔고, 광역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서관정책과 관련한 사업추진이나 노력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의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인 지역대표도서관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다. 즉,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인지 또는 공공도서관처럼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창구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¹¹⁾ 왜냐하면, 지역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역할개념과 지역의 도서관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기관

6) 배순자, 전제논문, p.47.

7) 박철완, “미국 주 도서관 서비스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pp.203-218.

8) 김세훈, 심효정, 전제논문, p.321.

9) 김세훈, “지역대표도서관 기반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과제보고서(2007.12).

10) *Ibid.*, p.15.

11) 박철완, 전제논문, p.204.

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통합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업무내용을 선정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단위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업무의 우선순위를 단위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분석

1. 조사목적 및 설문지 구성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라북도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현안과제를 규명하고, 둘째,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정보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넷째, 향후 전라북도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원과 협력사업 참여 및 향후 추진사업, 지역대표도서관 신설문제, 지역 공공도서관 지원과 협력측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구체적인 역할 및 추진해야 할 현안과제 등이다.

설문조사의 항목구성은 도서관운영주체, 자료구입비, 직원, 봉사대상자 등의 일반사항 6항목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원과 역할에 관한 9항목, 지역대표도서관의 신설과 관련된 2항목 등 모두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항목의 구성

구 분	설문항목	항목수
일반사항	도서관운영주체, 자료구입비, 직원, 봉사대상자, 근무기간	6항목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원과 역할	지역대표도서관의 주요역할	1항목
	지역대표도서관의 협력사업	4항목
	정보격차해소방안	1항목
	협력활성화 장애요인	1항목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2항목
지역대표도서관의 신설	지역대표도서관의 추진과제	1항목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운영방향	1항목
전 체		17항목

2. 조사결과

가. 응답자 및 응답자 소속기관의 속성

설문 조사 대상인 사서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전체 설문조사대상 94명 가운데 교육청 소속사서가 33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사서가 61명이었고, 응답자 소속기관의 자료구입비 비율은 대체로 전체 예산의 11-2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수는 4-10명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봉사대상자수는 11만명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대체로 규모가 큰 도서관이거나 봉사지역이 비교적 넓은 도서관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도서관근무기간은 11-20년까지라고 응답한 사서가 가장 많으나, 대체로 응답자의 도서관 근무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2> 응답자 및 응답자 소속기관의 속성

	구 분	응답자수(명)	비율(%)
도서관 운영주체	교육청	33	35.1
	지방자치단체	61	64.9
응답자 소속기관의 자료구입비비율	10% 이하	18	19.1
	11-20%	38	40.4
	21-30%	12	12.8
	31% 이상	26	27.7
응답자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수	3명 이하	18	19.1
	4-10명	38	40.4
	11-20명	12	12.8
	21명 이상	26	27.2
응답자 소속기관의 봉사 대상자수(무응답1명)	2만명 이하	18	19.3
	3-5만명	23	24.7
	6-10만명	22	23.7
	11만명 이상	30	32.3
도서관근무기간	5년 이하	34	36.2
	6-10년	14	14.9
	11-20년	38	40.4
	21년 이상	8	8.5

나. 도서관협력망 지역대표관의 지원과 협력사업

새로운 도서관법개정 이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전국적인 도서관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지정한 도서관협력망 지역대표관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통'의 수준이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잘못했음'이라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 '매우 잘했음'이라는 응답은 3.3%로 가장 적게 나타나, 대체로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한 지역대표관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의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역할은 매우 저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도서관협력망 지역대표관의 지원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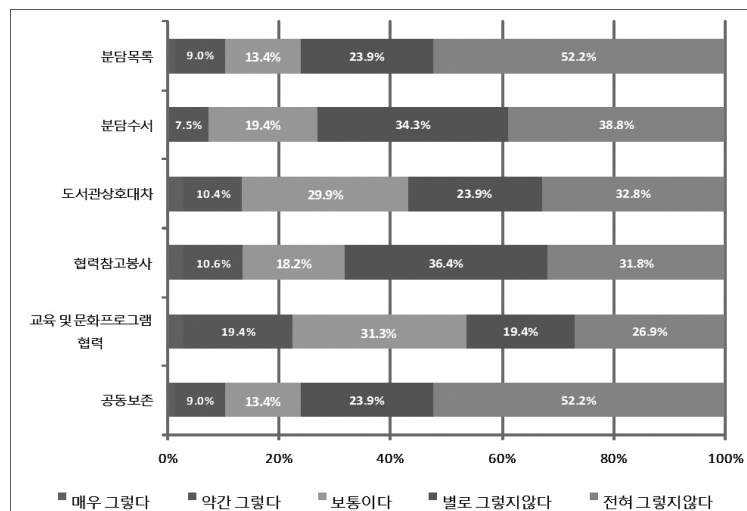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 전체 〉	91	100.0
매우 잘했음	3	3.3
잘했음	14	15.4
보통	48	52.7
잘못했음	20	22.0
매우 잘못했음	6	6.6

한편, 도서관협력망 지역대표관이 주도하는 협력 업무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은 협력 업무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협력'으로 22.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도서관협력망 지역대표관의 협력 업무에 참여와 도움이 많았던 업무

협력업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담목록	1.5	9.0	13.4	23.9	52.2
분담수서	0.0	7.5	19.4	34.3	38.8
도서관상호대차	3.0	10.4	29.9	23.9	32.8
협력참고봉사	3.0	10.6	18.2	36.4	31.8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협력	3.0	19.4	31.3	19.4	26.9
공동보존	1.5	9.0	13.4	23.9	52.2



그 다음으로 '협력참고봉사'가 13.6%, '도서관상호대차'가 13.4%, '공동보존'과 '분담목록'이 각각 10.5%, '분담수서'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체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협력', '협력참고봉사', '도서관상호대차' 업무는 많은 참여와 도움을 받은 업무였으며, '공동보존' 및 '분담목록', '분담수서'는 참여가 낮았고, 도움도 받지 못한 업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대표관이 주도한 협력 업무에 지역 공공도서관의 참여와 실질적인 도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롭게 지정되거나 설립될 지역대표도서관은 이에 대한 원인의 분석과 지역 공공도서관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도서관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되거나 설립될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도하는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향후 협력사업 참여여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전 체 >	94	100.0
적극적 참여	15	15.9
가능한 참여	47	50.0
예산지원 등 조건부 참여	31	33.0
불참	1	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능한 참여하겠다'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예산 지원 등 조건부로 참여 하겠다'가 33.0%,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가 15.9%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불참 하겠다'하는 응답이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대표도서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에 대해, 참여하겠다는 도서관이 98.9%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협력사업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예산 및 인력지원 등이 있을 때만 참여하겠다는 '조건부 참여'를 원하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협력사업의 추진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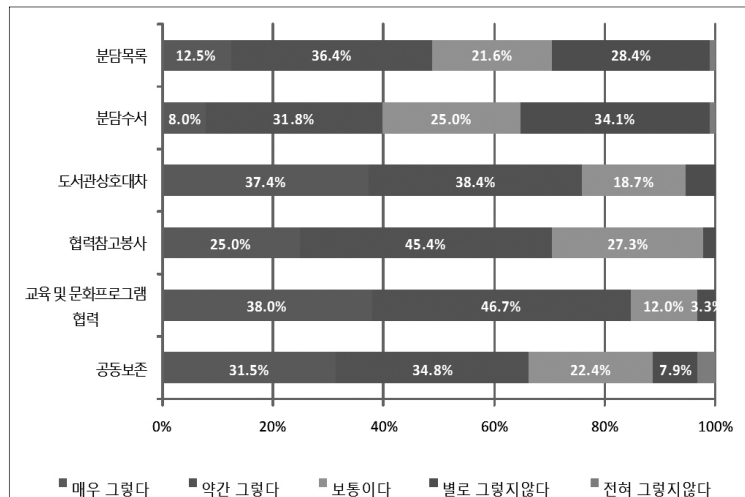
또한 향후 참여하고 싶은 협력사업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에서 보면, 향후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추진하는 협력 사업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 사업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협력'으로 나타났으며, 약 84.7%가 참여에 대한 긍정적으로(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사업을 살펴보면, 도서관 상호대차가

75.8%, 협력참고봉사가 70.4%, 공동보존 6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담수서에 대한 부정적인(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포함) 응답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분담목록이 29.5%로 부정적 응답이 나타났다. 분담수서는 운영주체가 다른 기관들끼리는 자료의 소유 및 관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분담목록은 협력사업을 통하지 않더라도 수월하게 목록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시급하게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향후 참여하고 싶은 협력사업

참여하고 싶은 협력업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담목록	12.5	36.4	21.6	28.4	1.1
분담수서	8.0	31.8	25.0	34.1	1.1
도서관상호대차	37.4	38.4	18.7	5.5	0.0
협력참고봉사	25.0	45.4	27.3	2.3	0.0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협력	38.0	46.7	12.0	3.3	0.0
공동보존	31.5	34.8	22.4	7.9	3.4



한편, 향후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설문대상자가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자관에서 협력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해서'가

21.7%, '개선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가 20.0%,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가 15.0%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협력사업에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의 참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하며, 협력사업의 이점이나 효과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협력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전 체 〉	60	100.0
개선가능성이 낮아보여서	12	20.0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18	30.0
현재 도서관 업무에 만족해서	2	3.3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9	15.0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해서	13	21.7
도서관이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6	10.0

라. 지역대표도서관이 추진하는 협력사업

지역대표도서관이 향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협력사업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협력'사업으로 나타났으며, 83.7%가 긍정적으로(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도서관상호대차가 80.4%, 협력참고봉사가 71.7%, 공동보존이 61.8%의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에 분담수서와 분담목록은 각각 29.3%, 38.8%로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는 지역 공공도서관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현재 도서관 환경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담수서'를 비롯하여 현재 도서관 환경에서 절실하게 요청되지 않는 '분담목록' 업무 등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협력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8〉 향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협력사업

최우선 고려 협력사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분담목록	14.4	24.4	35.6	16.7	8.9
분담수서	2.3	27.0	42.7	21.3	6.7
도서관상호대차	42.4	38.0	16.3	2.2	1.1
협력참고봉사	40.2	31.5	27.2	1.1	0.0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협력	44.6	39.1	14.1	2.2	0.0
공동보존	34.8	27.0	28.1	7.9	2.2

그러나 지역대표도서관이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이 추진하는 지원과 협력 사업 활성화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은 예산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라북도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87.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사업추진 예산의 확보와 지원이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전제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 장애요인으로 '전라북도의 무관심'이 81.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담당직원의 부재'가 67.7%, '운영주체들 간의 비협조'가 65.9%, '도내 공공도서관의 무관심'이 60.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도서관 운영주체들 간의 무관심'과 '사서들의 성의와 관심부족'은 각각 59.6%, 45.2%로 나타나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표 9 참조).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협력사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공도서관의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나 부서를 두어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들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예산의 확보와 지원으로 협력사업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표 9〉 협력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장애요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라북도의 무관심	51.1	33.0	15.9	0.0	0.0
도내 공공도서관의 무관심	15.1	45.1	26.9	9.7	3.2
사서들의 성의와 관심부족	5.4	39.8	31.2	17.2	6.4
예산확보의 어려움	52.7	34.4	12.9	0.0	0.0
담당직원의 부재	37.6	30.1	25.8	5.4	1.1
도서관 운영주체들의 무관심	20.2	39.4	28.7	8.5	3.2
도서관 운영주체들의 비협조	17.0	48.9	27.7	3.2	3.2

마. 지역대표도서관의 신설

지역의 도서관정책과 발전을 주도할 지역대표도서관의 별도 건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독립도서관이 없는 전라북도는 도서관의 상당수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농촌과 산간지역이 많은 도의 특성상 도농간의 지역정보격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내 도서관발전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공동도서관 운영주체 사이의 협력업무추진과 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새롭게 건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지역대표도서관의 건립 필요성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전 체 〉	94	100.0
필요하다	83	88.3
필요하지 않다	11	11.7

또한 지역의 도서관발전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94.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담부서의 바람직한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는 ‘과단위’가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단위’가 23.1%, ‘담당자’만 두는 단순한 형태가 4.4%로 나타났다.

〈표 11〉 지역대표도서관 건립필요성과 전담부서 조직형태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필요성	필요하다	89	94.7
	필요하지 않다	5	5.3
전담부서 조직형태	과단위	67	72.5
	계단위	22	23.1
	담당자	5	4.4

바.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지역의 공공도서관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즉 지역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가장 시급하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가장 시급하게 ‘지역대표도서관의 건립’과 ‘공공도서관 업무지원을 위한 조직의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7.0%와 65.6%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서인력 확보와 재교육’이 61.7%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지역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지원’이 52.8%, ‘도서관 협력망 구축과 사업의 지원’이 50.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도서구입비 지원’은 43.0%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지역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지역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건립	67.0	20.2	10.7	2.1	0.0
지역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지원	53.8	33.3	12.9	0.0	0.0
도서구입비 지원	43.0	28.0	24.7	4.3	0.0
공공도서관 업무지원 조직신설	65.6	24.7	8.6	1.1	0.0
도서관협력망 구축과 사업지원	50.5	40.7	7.7	1.1	0.0
사서인력 확보와 재교육	61.7	29.8	7.4	1.1	0.0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가운데서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대표도서관이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는 '도내 도서관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1.9%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외도서관협력'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응답이 40.2%의 수준이며, '도서관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가 34.0%, '도민정보서비스 강화'가 32.3%, '문화복합센터로서의 역할' 30.1%의 순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도내 출판 자료의 납본과 보존역할'은 상대적으로 낮은 23.4%의 응답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하여 시급한 과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13〉 지역대표도서관의 시급한 수행과제

지역대표도서관의 시급한 과제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서관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	81.9	13.8	4.3	0.0	0.0
대외도서관협력	40.2	44.6	15.2	0.0	0.0
도내 출판 자료의 납본과 보존	23.4	43.6	26.6	6.4	0.0
도서관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34.0	38.3	27.7	0.0	0.0
도민정보서비스 강화	32.3	47.3	20.4	0.0	0.0
문화복합센터로서의 역할	30.1	34.4	26.9	8.6	0.0

이 결과로 볼 때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대외도서관과의 협력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도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와 문화복합센터로서의 업무 등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중점추진업무에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표 14〉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격차해소와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지원 방안을 조사하였는데, 정보격차해소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약 27.3%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 '도서관의 적극홍보로 이용확대 도모'가 26.0%, '장애인, 노인 등 특화된 지원서비스 개발'이 19.0%, '작은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거나 지원' 16.1%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도서관의 장서 대폭 확충'은 11.6%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표 14〉 정보격차해소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방안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전 체 〉	242	100.0
작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지원	39	16.1
장애인, 노인 등 특화된 지원서비스 개발	46	19.0
도서관 이용시설이나 설비 개선	66	27.3
도서관의 장서 대폭 확충	28	11.6
도서관 적극 홍보로 이용확대 도모	63	26.0

그 밖에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른 유사 기관과 중복 운영되는 보편적인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역의 고유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축제 및 행사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지공예 관련 프로그램'이 21.0%, '전통소리 관련 프로그램'이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장 적절한 문화프로그램

(단위 : 명, %, 중복응답)

구 분	빈 도	비 율
〈 전 체 〉	176	100.0
지역사회 축제 및 행사지원 프로그램	53	30.1
전통음식 관련 프로그램	28	15.9
전통소리 관련 프로그램	30	17.1
한지공예 관련 프로그램	37	21.0
지역 특산물 연계 프로그램	28	15.9

한편, 이러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측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이 표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역할을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공공도서관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담당자의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29.8%, '지역공공도서관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인식이

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역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 전체 〉	94	100.0
지역대표도서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32	34.0
지역대표도서관이 강사를 통합관리하고 지원	12	12.8
지역공공도서관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	22	23.4
지역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28	29.8

IV. 결론 및 제언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은 이전에 존재하였던 지역대표관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의 지역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협력망 지역대표관이 주도하는 협력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거나 도움이 많았던 협력 업무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협력'과 '협력참고봉사', '도서관상호대차' 업무로 나타났고, '분담목록'과 '분담수서'는 참여와 도움이 미미한 업무로 확인되었다.

둘째, 새로운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원 및 협력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사서들의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참여하고 싶은 협력 업무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협력', '도서관상호대차', '협력참고봉사', '공동보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분담수서'와 '분담목록' 업무는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대표도서관에서 향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협력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조사결과로 볼 때, 조사대상 사서들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업무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자관에서 협력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을 들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협력사업 성과의 미진', '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대표도서관이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 사서들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무관심', '담당직원의 부재', '운영주체간의 비협조'의 순으로 들고 있다.

다섯째, 지역대표도서관의 시급한 수행과제로 사서들은 '지역 내 도서관의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역 도서관들을 대표하여 대외도서관과의 협력', '도서관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의 순으로 나타났고, '도민 정보서비스 강화', '문화복합센터로서의 역할'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여섯째, 지역대표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와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서관 이용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관의 적극홍보로 이용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거나, '장애인, 노인 등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가장 많은 참여의 의향을 나타내고, 시급한 수행과제라고 밝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른 유사기관과 중복 운영되는 보편적인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역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 지역공공도서관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서들은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제시한 많은 역할을 한번에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들의 협력이나 참여가 낮았던 도서관 협력망 지역대표관에서 주도한 협력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도서관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대부분의 지역 공공도서관은 협력사업의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인력지원 등이 있을 때만 참여하겠다는 '조건부 참여'를 원하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협력사업의 추진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협력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지역대표도서관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에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협력사업의 이점이나 효과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이 추진하는 협력사업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나 부서를 두어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들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예산의 확보와 지원으로 공공도서관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지정한 다양한 업무 가운데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대외도서관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와 문화복합센터로서의 업무 등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중점추진업무로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